

섹스, 스포츠 그리고 스크린

(흔외정사 6)

“그래서 지금의 나는 사랑에는 다른 아무 정신적 차원의 것도 필요 없다고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사랑은 그저 내가 좋아하는 그녀의 아름다운 부분을 만지작거리면서 느낄 수 있는 관능적 희열감일 뿐...” <나는 야한 여자가 좋다>는 어떤 시인의 에세이집에 실린 글이다.

자신의 이성관(異性觀)이 어떻든 그거야 ‘자유’고 전적으로 자신의 의사에 달린 문제이긴 하다. 그러나 석가모니는 가르치고 있다.

“정욕의 불꽃이 타는 대로 쫓아가는 사람, 향락에 굶주린 사람, 육욕이 점점 크는 대로 방임해 두는 사람, 이들은 스스로가 쇠사슬로 결박 짓는 사람이다.”

세상이 많이 변했다.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사이버 교제’라는 신종 매춘(賣春) 방식이 생긴 지도 오래되었다. 하기가 ‘들병이’라고 불리는 고전 속의 이동식(移動式) 매춘이 있었던 것을 생각한다면 인터넷 상거래가 보편화된 지금에야 별로 놀랄 것도 없는 일이다.

이런 세상의 일에 재빠르게 적응할 필요까지야 없겠지만 이런 이야기를 듣고도 “설마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딱 두 가지의 경우 밖에는 없으리라. 즉 생각이 매우 건전하거나 생각이 매우 단순하거나.

2004년 9월 23일 0시를 기해 성매매특별법이 발효되었다. 이 전까지의 윤락행위 방지법과는 차원을 달리 하는 양벌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것은 몇 년 전 서울 종암 경찰서에 부임한 한 여자 서장이 ‘매춘과의 전쟁’을 선포하여 미성년자를 고용하는 윤락 업소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처벌하여 최소한 청소년들을 성(性) 상품화하는 일을 막도록 했던 일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 같다. 일단은 좋은 취지라고 본다. 그러나 이것은 곧 심각한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이것은 머지않아 매춘과 관련된 직업여성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이고 유흥업과, 숙박업 등 관련 업종의 쇠락으로 직결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유흥업과 현행법상 불법인 매춘의 쇠락이 왜 문제인가?

매춘과 폭력은 낮 문화의 반대쪽, 즉 밤 문화의 양대 축이 되어 서로 상쇄(相殺)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매춘을 지나치게 누르면 폭력 또는 준 폭력의 집단행동이 표출될 가능성이 커진다. 한편으로는 더욱 음성적인 방법으로 매 매춘 행위가 이루어지게 된다. 터키 탕

영업을 불법화한 후에는 마사지 출장 영업이 호황을 누렸고, 성매매특별법 발효 후에는 매
매춘의 장소가 아파트와 주택가로 옮겨 가고 있다고 보도되지 않는가?

모든 것을 다 그토록 백안시(白眼視)할 일은 아니겠지만,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따라가
는 것이 경제 원리라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폭력은 당연히 억제해야 할 문제이다. 그러나 폭력과 등가(等價)적 관계에 있는 매춘까지
지나치게 억누르면 그것은 분출구를 찾다가 혹은 반사회적인 것으로 혹은 반체제적인 것으
로 번지게 된다.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후진국의 독재자들이 이른바 3S(Sex, Sports and
Screen)정책이라는 향락 산업에 국민을 노출시키는 것은 그것이 민중의 응집력을 분산시키
는 효과, 즉 반체제적 욕구를 희석시키기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1980년, 18년 만에 맞은 ‘서울의 봄’이 다시금 뽕뽕 얼어붙기 시작할 때 조국의 민주화를
열망하던 청장년의 젊은이들은 자신들이 왜 그렇게도 열광적으로 변질해 가는지도 잘 모른
채 프로 야구에 심취하고 열병처럼 번져 가는 향락 산업의 고객이 되었다. 그 즈음 텔레비
전 방송국이 칼라 방송을 송출(送出)하기 시작한 것과는 전혀 무관하지 않다.

각설하고, 홍등가(紅燈街)에 가면 꼭 ‘어떻게 어떻게 생긴 아가씨’만을 원하는 사람이 있다
고 한다. 잃어버린 첫사랑의 이미지라든가 넘볼 수 없는 이웃집 아줌마의 이미지를 가진 여
자를 만나고 싶어 하는 것이다. 이른바 ‘대리 형성’의 정신 기제이다.

그래서 사창(私娼)은 불법이지만 가만히 놓아두면 일정 부분 순기능을 한다. 그 정념(情
念)의 분출구를 막아 버리면 예상치 못 한 몇 가지의 역기능이 생긴다. 그것은 사회와 체제
에 대한 반감일 수도 있고 특정 개인을 희생양으로 하는 강간 등의 성범죄일 수도 있고 어
느 순간 운명인 듯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혼외정사일 수도 있다.